

속 골병...직업병 인정 못받아

정보사회의 실상 12

VDT증후군등 '첨단병'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쑤시고 밤엔 온통 팔이 저려 잠을 못이룹니다.” “걸레를 잘 힘도 밟상을 들 힘도 없습니다.”

언뜻 들으면 고된 살림에 오래 시달린 60~70대 할머니의 하소연 같다. 그러나 지난주 한국여성민우회와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주최로 열린 '사무직 노동자 직업병 공개발표회'에서 걸음으로는 멀쩡하고 곱게만 보이는 20대 여성들이 쏟아 놓은 말이다.

정보사회의 꽃인 '컴퓨터'의 대량보급이 가져온 또 하나의 어두운 그늘이 '컴퓨터 직업병'이다.

서울 강남클리닉 김홍준(정형외과 전문의) 박사는 “직업상 매일 컴퓨터 단말기를 가까이해야 하는 젊은 여성들 가운데 손목·어깨·허리의 통증을 호소해 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심지어 컴퓨터 사용이 잦은 어린이·청소년들까지도 정형외과·안과 등을 찾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흔히 'VDT증후군'이라 불리는 컴퓨터 단말기 사용자들의 경관완(목·어깨·팔)장애, 시력저하 등의 증상은 손·발이 잘려 나가는 산업재해나 이산화탄소·수은중독 등의 직업병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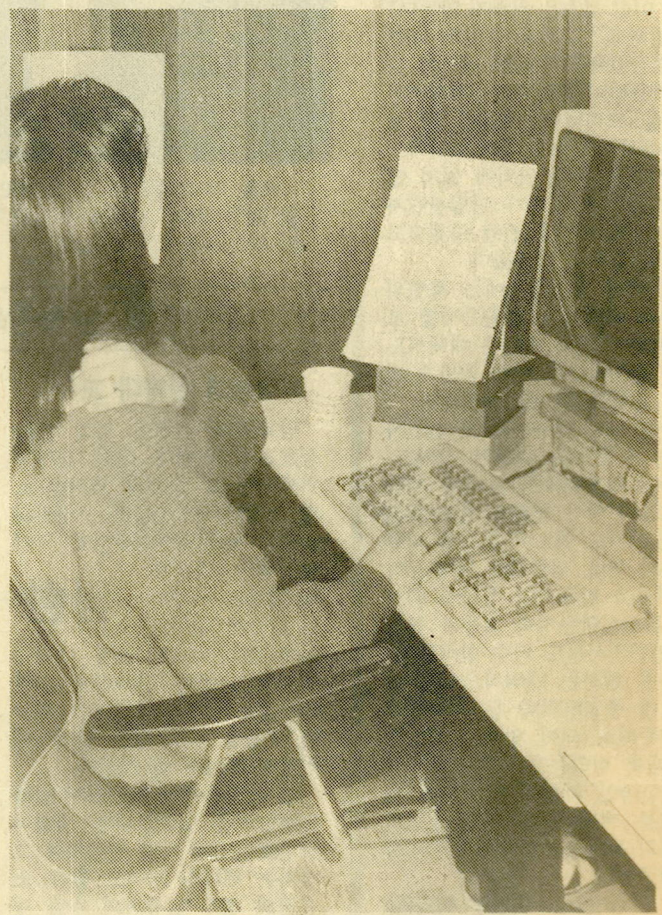
그런다”는 등의 가당찮다는 반응을 보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89년 문화방송에 근무하던 타자수 최효숙씨가 '경관완증후'로 진단받아 4천49만원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러나 사용기종이 컴퓨터 단말기가 아니라 타자기였다.

현재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단말기 취급 사무직 여성 5명은 정밀진단 결과 어깨가 결리고 쑤시고 붓는 '경추신경근증' '양견부 건염' '경추부신경근증' 등으로 진단받아 집단 물리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연구원쪽에서는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비만 부담할 뿐 치료비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

20대인 이들은 “특히 일이 몰리는 연말에 3~4일씩 밤을 새워 계속 단말기를 두드려대고 난 뒤에는 버스 손잡이도 잡을 수 없고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수도 없이 깨뜨리기도 한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단말기증후군과 컴퓨터 작업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의학계의 최근 움직임은 '무재해 작업환경' '작업시간 단축' 등 컴퓨터 예찬론의 뒷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고달픔을 파헤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컴퓨터 단말기 사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경관완장애 등을 직업병으로 인정, 산재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어깨·허리등 심한 통증 일상생활 위협

“빨래 잘 힘도 없다” “팔이 저려 잠 못이룬다” 호소

“치료 불가능”...전자파 피해규명도 시급

아직까지는 덜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또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첨단병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조흥은행·서울신협은행·신한은행 등에서는 '경관완장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치료비 실비와 요양·휴업·장해·유족보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했다. 이밖에 연구소·신문사·통신공사 등의 노조에서도 올 단체협약 내용에 '경관완장애의 업무상 재해 인정조항' 명문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VDT증후군'을 직업과 관련있는 질병으로 인정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치료받고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또한 걸음으로는 뚜렷한 증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용주들은 “엄살부리지 마라” “구로공단에 가봐라” “호강에 겨워서

있다.

지난해 중앙대 의대 안과 김재찬 교수팀이 컴퓨터 단말기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20개 업체의 직원 3천8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안질환으로 병원·약국의 처방을 받고 있는 사람이 18.2%였으며, 83.7%는 '시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9년 가톨릭대의 산업의학센터 박정일 교수팀이 여성 국제전화교환원 2백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관완장애' 실태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어깨(62.5%)·팔(50%)·목(38.6%)·허리(36.2%)·손(34.8%) 등의 차례로 통증을 호소했다.

이런 결과는 서울 수출입은행·환은행·조흥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은행 여행원 5백51명을 조사한 한국여성민우회와 노동건강연구회의 최근 '사무직여성 노동자의 경관완장애에 대한 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대상자

의 12~17%가 '어깨나 허리가 항상 아프거나 결린다'고 답했으며 '손이나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5.3%), '시력이 나빠졌다'(49.7%)고 응답했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1회 단말기 연속작업시간이 길수록 △밤중에 팔이 저려 깬다 △빨래를 짜기 힘들다 △이부자리를 장롱에 얹고 내릴 때 괴롭다 △단추를 끼우기 힘들다 △과일을 꺾기 힘들다 △왼쪽 등이 아프다 △오른쪽 등이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들 컴퓨터 단말기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또하나의 문제는 '전자파'다. 아직 의학적으로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말기 화면에서 나오는 각종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다.

노동과 건강연구회 양길승 공동대표는 “전자파 피해는 상업적 이유로 과장된 감이 없지 않

지만 아직 정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심리적인 부담은 여전하다.

“전산실 기기에 맞춰 온도 20℃, 습도 50%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 결림이 심해요.”

기업체의 컴퓨터 중앙전산실에 근무하는 한 연구원의 말이다.

사람보다는 컴퓨터에 적합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환경 탓에 허리통증이나 감기를 안고 사는 등 컴퓨터 때문에 잔병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다.

현재 우리나라 컴퓨터 보급대는 1백만대를 갓 넘었다. 정부는 '2000년대까지 2천만대 보급'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경관완장애 등 단말기증후군의 뚜렷한 치료법이 개발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정보사회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미경 기자〉